

월드컵 소식

‘아주리’ 앞엔 징크스도 없었다

골대 두번 맞추고
개최국과 대결서
이탈리아 결국 승

독일월드컵축구에서 변함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징크스 저주도 ‘아주리군단’ 이탈리아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다. 5일 오전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열린 2006 독일월드컵 준결승에서 이탈리아는 대표적인 2가지 징크스를 떨쳐버리고 독일에 2-0 승리를 거두며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탈리아가 이겨낸 첫번째 징크스는 ‘골대 징크스’. 골포스트나 크로스바를 맞추면 진다는 이 징크스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처음 만들어냈다. 프랑스는 조별리그 3경기에서 5번이나 골대를 맞았지만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1무2패로 쓸쓸히 귀국길에 올랐다.

이날 경기에서 이탈리아도 이 징크스가 되살아나지는 않을까 걱정했을 법하다. 무려 2번씩이나 골대를 맞았기 때문이다.

연장 전반 2분 알레산드로 질라르디노의 왼발 터닝슛이 오른쪽 골포스트에 맞고 튀어나왔고 1분 뒤 페넬티지역 오른쪽 외곽에서 잔루카 캄브로타가 때린 중거리슛도 크로스바를 맞고 뿔겨져 나갔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골대 징크스에 굴하지 않고 경기 종료 직전 파비오 그로소와 알레산드로 델피에로의 연속 골로 ‘진차군단’ 독일의 본거지 도르트문트를 함락하는데 성공했다. 이와함께 이탈리아가 극복해낸 징크스는 바로 ‘개최국 징크스’. 영원한 우승후보 이탈리아는 최근 두차례 월드컵에서 개최국만 만나면 이상하리만큼 작아졌다.

누구나 기억하고 있다시피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에서 개최국 한국과 만난 이탈리아는 1-1 동점에서 들어간 연장전에서 안정환에게 골든골을 허용하며 무릎을 꿇었다.

앞서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도 이탈리아는 개최국인 프랑스와 8강전에서도 결국 승부차기에서 4-3으로 패해 2개 대회 연속으로 개최국 징크스에 들어야 했다. 이탈리아는 그러나 세번 연속으로 개최국에 발목을 잡힐 수는 없었고 이번 대회에서는 결국 개최국 독일을 밀어내고 당당히 결승에 올라 역대 4번째 월드컵 우승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탈리아 국기를 든 여성 축구팬이 5일 독일 도르트문트 시그날-이두날 파크에서 열린 독일-이탈리아전서 이탈리아의 승리가 확정되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여성축구팬과 일행들이 베를린 ‘팬마일’에서 독일 대 이탈리아의 월드컵 준결승전을 응원하던 중 독일이 패하자 울음을 터트리고 있다. 연합뉴스

승부차기 했다면?

독일을 상대로 승부차기를 하는 일은 기필코 피하겠다는 마르첼로 리피 이탈리아 감독의 ‘배수진 공격 전술’이 이탈리아를 독일월드컵축구 결승으로 견인했다.

이탈리아 축구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화려한 공격보다 내실있는 수비를 지향하고 항상 지키려는 쪽에 가깝다. 그러나 5일 도르트문트에서 펼쳐진 독일과 준결승에서 적어도 연장 전후반 30분간 이탈리아는 완전히 다른 팀이었다.

이유는 승부차기 때문이었다. 독일은 골키퍼 옌스 레만(아스날)이 수훈을 세운 아르헨티나와 8강전 승부차기까지 역대 월드컵에서 승부차기 4번 전승을 달리는 팀이다.

반면 이탈리아는 3연패를 당하고 있었

다. 1990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 준결승에서 아르헨티나와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승부차기에서 3-4로 저 결승행이 좌절됐다.

1994년 미국월드컵에서는 결승에서 브라질에 승부차기 끝에 우승컵을 갖다바쳤다. ‘공저머리’ 로베르토 바조의 실축이 두고두고 회자된 대회였다.

1998년 프랑스월드컵 8강전에서도 프랑스와 점점이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4로 패해 짐을 싸야 했다.

유럽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잔루이지 부폰(유벤투스)이 골문을 지키고 있지만 이탈리아 입장에서 승부차기는 ‘반드시 피하고 싶은 길’이었을만 하다.

전반 독일을 거세게 몰아붙인 이탈리아는 후반엔 공격이 뜸했다. 그러나 연장

‘거미손’ 옌스 레만의 독일 절대 유리
이탈리아, ‘피해야 한다’ 연장 승부수

전반 후술이 다시 울리자 갑자기 무차별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알베르트 질라르디노(AC밀란)와 잔루카 캄브로타(유벤투스)의 슈이 연달아 골대를 맞고 나왔지만 이때부터 독일은 아주리군단의 파상공세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이탈리아의 공격력이 배가된 것은 리피 감독이 미드필더 2명을 차례로 빼고 공격수들을 그 자리에 투입했기 때문이다.

중원에서 압박은 달해졌지만 대신 전방에서 공격수 3~4명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파비오 그로소(팔레르모)의 결승골과 델피에로의 추가골이 거저말처럼 터져나왔다.

최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클린스만, 감독 계속 맡았으면”

베켄바워 조직위원장 밝혀

대표팀을 계속 이끌어갈 바란다고 프란츠 베켄바워(60) 2006 독일월드컵축구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5일 밝혔다.

선수과 감독신분으로 두 차례나 독일을 월드컵 정상에 올려놓은 베켄바워 조직위원장은 이날 이탈리아와 준결승에서 연장 종료 직전 두 골을 잇따라 내줘 0-2로 패한 뒤 가진 독일 TV방송과 인터뷰에서 “내 생각에 우리 팀은 정말 잘 싸웠다. 이탈리아가 빈틈이 없었을 따름”이라고 말하고 “클린스만이 (감독직을) 계속 맡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클린스만은 그 나름대로 젊은 팀을 꾸렸는데 젊은 선수들이 그를 신뢰하고 있다. 우리가 그걸 잃는다면 유감이다. 위르겐이 계속해줄 것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베켄바워 조직위원장은 또 이탈리아와 준결승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훌륭히 해냈으며 오늘 패배가 그걸 바꿔놓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1974년 서독월드컵 당시 선수로 서독의 우승을 이끌었던 베켄바워는 1990년 이탈리아월드컵에서 대표팀 감독을 맡아 조국에 월드컵 트로피를 안겼다.

“경고 누적 횟수 3회로 늘려야”

블래터 FIFA회장 시사

는 가운데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1경기 출장 금지 징계를 받는 경고 누적 횟수를 3회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5일 AP통신에 따르면 블래터 회장은 “경고 누적 횟수를 3회로 늘리는 것은 현명한 제안”이라며 규정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블래터 회장은 “몇몇 리그에서는 3~5장의 경고가 누적돼야 출장이 금지된다. 월드컵에서도 경고 누적 횟수를 늘려야 한다”며 “앞으로는 3장의 옐로카드를 받아야 출장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월드컵에서도 전체 64경기 중 60경기가 마무리됐지만 그동안 레드카드 27장에 옐로카드 331장이 나와 이미 역대 기록을 깨뜨렸고 심판들은 경고를 너무 남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또 “이미 경고를 한 장 받은 선수가 불운하게도 4강전에서 옐로카드를 추가로 받는다면 그 선수는 결승전에 뛸 수가 없는데 규정을 바꾸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이 4강에서 탈락했지만 위르겐 클린스만(43) 감독이 국가

독일월드컵축구에서 사상 유례없는 경고와 퇴장이 속출하고 있

소장파, 投·打 주도



올 시즌 프로야구계가 짧은피들의 활약으로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4일 현재 케넌트레이스(팀당 126경기)가 반환점을 돌아선 가운데 타자와 투수 부문 상위 자리는 타이틀과 인연이 적었던 새 얼굴로 채워져 있다.

KIA의 ‘리딩히터’로 자리잡은 고졸 2년차 이용규는 78개의 안타를 때려내 지난해 안타왕인 이병규(LG)와 최다 안타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용규는 지난 달까지 타격 부문에서도 단독선두를 유지했으나 최근 6경기에서 타율 0.217(23타수 5안타)에 그치면서 단독 5위(0.316)로 내려앉은 상태다.

이용규의 빈자리는 4년차 이택근(현대)이 꿰찼다. 이택근은 타율 0.338로 4차례 타격왕을 차지했던 양준혁(삼성·타율 0.332)을 제치고 당당히 타격부문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 지난해까지 거포로서는 2%가 부족

고졸 2년차 KIA 이용규 최다안타 공동 1위

한화 루키 유현진 다승·방어율·탈삼진 선두

해 보였던 이대호(롯데)는 올 시즌 화끈한 장타력을 뽐내며 홈런(14개)과 타점(49개), 장타율(0.575) 등 3개 부문 1위를 휩쓸고 있다. 두산의 4년차 외야수 이종욱도 17개의 도루로 지난해 도루왕 박용택(LG·14도루)을 따돌리고 첫 개인 타이틀 수상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뉴페이스 약진의 중심에는 ‘특급 신인’ 투수 유현진(한화)이 자리하고 있다. 역대 고졸신인 최고 계약금인 10억원을 받았던 ‘슈퍼 투키’ 한기주(KIA)에 가려 있었던 유현진은 현재 다승 공동 1위(10승)와 방어율(2.45), 탈삼진(114개) 등 3개 부문을 석권하며 15년 만에 투수 ‘트리플 크라운’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투수 3관왕(다승·방어율·탈삼진)은 ‘국보급 투수’ 명성을 얻었던 선동열 삼성 감독이 지난 1986년과 1989~1991년까지 4차례 작성했다.

구원 부문에선 2년차 특급 마무리 오승환(삼성)이 25세이브로 지난해 구원왕 정재훈(두산·23세이브)을 2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1위를 지키고 있다.

오승환은 지난해에는 중반부터 뒷문지기로 나서서 바람에 구원 6위(16세이브)에 그쳤다. 이와함께 상과 인연이 없었던 삼성의 든든한 중간계투 권오준은 홈드(15홈드)와 승률(1.000) 부문, 각 1위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SK 조경환 영입

프로야구 KIA타 이거즈는 5일 “최근 SK에서 방출된 외야수 조경환(34)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조경환은 1998년 롯데에서 프로에 입문한 뒤 2002년 SK로 트레이드됐고 지난 8년간 통산 타율 0.264, 홈런 122개를 기록했다.

한편 조경환은 SK에서 올 시즌 대타로 4경기에 출장, 5타수 무안타에 그쳐 지난해 26일 방출됐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서재응·김병현 8일 선발 등판

광주일보 1년 선후배 사이인 서재응(29·탬파베이 데블레이스)과 김병현(27·콜로라도 로키스)이 8일 동반 등판, 각각 시즌 3승과 6승 달성에 도전한다.

미국프로야구 콜로라도 로키스 구단은 5일 보도자료를 게재하며 8일 오전 10시 15분 콜로라도주 덴버 쿠어스필드에서 벌어지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홈경기에서 김병현이 선발로 나선다고 예고했다.

탬파베이 구단은 아직 공식 예고는 하지 않았으나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8일 오전 8시 15분 콜로라도주 세인트피터스버그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벌어지는 뉴욕 양키스와 홈경기에서 서재응이 선발 등판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메리칸리그 이적 후 두 번째로 선발로 나서는 서재응은 이날이 홈 데뷔전인 셈이다.

5승4패, 평균자책점 4.83을 올린 김병현은 친정팀 애리조나를 상대로 올 시즌 처음이자 통산 4번째로 등판한다. 선발 등판은 두 번째. 애리조나에게는 승리 없이 2패, 평균자책점 7.88로 석 재미를 보지 못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샤라포바 4강 진출

데멘티에바 2-0 꺾고 2년 연속 준결승 올라

윌블던테니스 여자단식

‘테니스오징어’ 마리아 샤라포바(세계랭킹 4위·러시아·사진)가 총상금 183억원이 걸린 윌블던테니스대회 여자 단식 4강에 진출했다.

샤라포바는 5일 새벽 영국 윌밍글랜드 클럽에서 벌어진 8강전에서 같은 나라의 엘레나 데멘티에바(8위)를 2-0(6-1 6-4)으로 완파하고 2년 연속이 대회 준결승에 올랐다. 지난 2004년 윌블던을 제패하며 단숨에

신데렐라로 떠올랐던 샤라포바는 지난해 호주오픈, 윌블던, US오픈에 이어 올 호주오픈까지 모두 4강 진출에 그치며 ‘4강 전전선수’라는 달갑지 않은 애칭을 얻은 바 있어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올 해 호주오픈 우승자인 아말리 모레스모(1위·프랑스)는 아나스타샤 미스키나(11위·러시아)를 2-1(6-1 3-6 6-3)로 누르고 3년 연속 4강에 올라 샤라포바와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다.

2위인 킴 클리스터스와 프랑스오픈 우승자인 쥐스틴 에빙(3위·이상 벨기에)도 각각 리나(30위·중국)와 세브린 브레몽(129위·프랑스)를 제치고 4강에 합류, 결승 진출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승부를 펼친다.



6일(목)
▲메이저리그(뉴욕·클리블랜드) 07:55·Xports, (LA에인절스-시애틀) 10:55·Xports
▲제60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준결승 (13:00·KBS SKY SPORTS)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주니치) 17:50·SBS스포츠
▲프로야구(SK-삼성) 18:30·KBS SKY SPORTS (현대-롯데) 19:00·MBC ESPN
▲윌블던 테니스 여자단식준결승(22:30·MBC ESPN)
7일(금)
▲PGA 투어 사할리스 웨스턴 오픈 1R (05:00·SBS스포츠)